



갈보리선교회 브라가의 소식들

Beracah Valley News

제38차 갈보리선교회 특별전도팀 국내순회전도 보고



제38차 국내순회전도를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
예수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 주신 국내외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본회 회원교회와 후원회원, 기도회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특별전도팀구성**

- 총지휘: 김승석목사(분당충만교회.선교회장.단장)
- 메세지 및 지도회원: 김중남목사(충남파도교회, 이사), 박광재목사(영광교회, 이사), 김정은전도사(분당충만교회.행정/위십간사), 김현성전도사(분당충만교회), 주정립(분당충만교회, 서기), 윤정화(분당충만교회, 회계/위십간사), 류춘복(분당충만교회, 중국어간사), 김아영(분당충만교회, 영어간사), 김 혁(분당충만교회, 차량간사), 박지연(분당충만교회)
- 단 원: 이기성(분당충만교회.엔지니어)의 16명

기간: 2011년 7월31일(주일)~8월12일(금)
대상지역: 경기도(첫째주간), 전라도(둘째주간)

7월 31일	① 17사단 사령부/신교대 (부평)	7일	① 31사단 사령부(광주)
8월 1일	① 수원예비군훈련장	8일	① 목포장애인요양원(목포) ② 31사단 96연대 1대대(목포대대)
2일	① 참편한요양원(광명) -노인복지시설 ② 수도권단 방공대대(광명)	9일	① 목포공생재활원(목포) ② 31사단 96연대 3대대(영광대대)
3일	① 중앙양로원(안양) -노인복지시설 ② 수도권단사령부(안양)	10일	① 아가페하우스(전주) -노인복지시설 ② 전주덕진교회 -정성호목사사무
4일	① 효선당(부천) -노인복지시설 ② 용인예비군훈련장	11일	① 35사단 105연대 1대대(부안대대)
5일	① 중앙양로원(수원) -노인복지시설	12일	① 따뜻한사랑의집(전주) -노인복지시설 ② 35사단 106연대 2대대(전주대대)

후원&기도회원,단원 모집안내

- 후원회원: 물질과 기도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 교회-후원금 송금은 월별 또는 연간으로 선택해서 본 회가 발송하는 MICR용지를 사용하거나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도회원: 모든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로 동참하시고자 하는 개인, 단체-인터넷 홈페이지 상이나 또는 본회가 별도로 보내드리는 보고서의 기도제목을 답지하시고 매일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 특별전도팀,유치장전도팀단원: 실무사역훈련과 국내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학습교인이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31-713-0807/ www.calvarymission.com / 네이버&다음에서 갈보리선교회로 검색)



*농협:017-12-077384
*국민은행:825-21-0082-437
*우리은행:146-08-237723
(예금주/김승석)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뜨거운 기도

35사단 106연대 2대대
일병 양용민

안녕하세요. 저는 군생활을 시작한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사실 입대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입대 이후 종교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서 신병때 접한 이후로 자대에 와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이번 갈보리선교회에서 저희 대대를 찾아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공연을 본 것도, 주님을 향해 간절하고도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요즘 안그래도 대대 장병들이 기독교를 잘 믿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집회를 갖고 나서는 그런 마음은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속에 울리는 큰 감동

31사단 사령부
이병 송호섭

비오는 주일 저녁! 삼일교회에서 갈보리선교회 집회가 열렸다. 사실 갈보리선교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단 한 번의 집회밖에 보지 못했지만 갈보리선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길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느낌은 그들이 걸어온 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군대, 교도소 등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향했다. 예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기쁨이 되셨던 것처럼 갈보리선교회도 낮은 곳으로 기쁨으로 나갔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의 찬양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느껴졌다. 빠르고 강렬한 찬양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주를 찬양하며, 다소 정적인 울동으로 주를 예배한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울리는 감동은 크다. 물속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큰 파동과 울림을 내듯 이들의 절제되고 정적인 찬양은 뜨겁게 가슴을 울린다. 이런 갈보리선교회의 집회를 통해 예수의 마음을 배웠고 이 마음 품고 주의 군사로 자녀로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31사단 96연대 1대대
이병 김광식

솔직히 말해 난 기독교 신자는 아니다 군에 오게되어 종교활동에 이끌려 기독교 회를 다니게 되었다. 대대에 배치받고 나서 역시 기독교에 다녔었는데 오늘 예배는 훈련소와는 다른 감이 컸다. 위십과 말씀, 예수를 위한 노래 등 오늘 갈보리선교단이 보여준 선교활동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지를 보여줬고, 그들의 의지를 전파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많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하였다. 그들이 믿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이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길 바라는 그들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나의 소만한 부분이 깨어졌다

51사단 168연대 4대대
병장 김명호

2011년 8월 1일. 엄청난 영향을 받은 날이다. 갈보리선교회 특별찬양팀의 공연을 보았던 것이다. 밖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을하며 생활해 왔던 나이지만 군대에서 신앙활동을 집중할 수 없는 이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 나의 오만하고 약한 부분들을 깨우칠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다. 이번 집회를 통해 군대도 좋은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남은 군생활을 모두 투자하여 예수님을 알리는데 힘써야겠다고 다짐한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면서

35사단 106연대 2대대
상병 이상화

오늘 부대에서 갈보리선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입대전에 다니던 교회처럼 찬양 시간과 말씀시간에 집중이 잘되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던것을 다시 올바르게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면서 재미있고 뜻 깊은 하루가 된 것 같다.





정확한 것을 찌르며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35사단 106연대 2대대
상병 신광은

부대에서 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 말씀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정말 정확한 것을 찌르며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집회가 저에게 많은 힘과 도전이 되어 정말 좋았고 많은 장병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영적 갈급함과 사단의 공격에
힘들어 하던 차에

17사단 102연대
상병 강 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갈급함과 사단의 공격에 힘들어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통로이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저를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으며 아직도 나는 떨었다는 생각 뿐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갈보리선교단에 가득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병들 마음 깊숙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합니다.

수원예비군훈련장
상병 장필규

우리 대대로 제가 전입은 후 한 번도 위문으로 교회에 온 단체를 못봤는데 이번에 처음 가진 이 시간이 너무나 은혜로웠다. 이번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4대대 장병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크게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했다. “다음에 꼭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이 장병들 마음 깊숙히 들어가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금 주님앞에 선다면
땃땃한가!

17사단 102연대
병장 황준후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다스리신다” 군대 올 당시에 몸과 정신적으로 연약해져서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 ‘제발이 어둠속에서 날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살면서 군대의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잃었던 건강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기도만 하고 회개를 도무지 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강해진 내 모습에 대견해하며 안도하였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찌찌해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금 복음을 들으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난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땃땃한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부터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게 되었다.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온 나 자신을 회개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길 기도한다. 오늘 이시간 다시금 마음을 다잡은 것 같다. 감사하다.



**가슴을 찢어놓고 칼날이 되어
마음에 꽃히는 채찍소리**

아가페 하우스
박한수 목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갈보리선교회를 통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경험합니다. 텅 빈 하나하나가 밝은 얼굴로 우리들을 대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실천이 기쁨속에서 이루어지고 화평가운데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성극 가운데 채찍 소리가 나의 가슴을 찢어놓고 칼날이 되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런 주님의 고통이 있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 온 세상을 향해 전도자로 나아가는 기쁨이 있다고 봅니다. 불쌍한 영혼을 위한 발걸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축복의 발걸음이 되고 찬양이 되고 성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보리선교회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죄 짓지 않으리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따뜻한 사랑의 집
김정이 간호사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우아하고 즐겁고 웅장한 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만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볼까 합니다. 죄 짓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회개의 방법도 알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더욱 노력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촉촉한 단비처럼 적셔주셨습니다

효선당 요양원
이정희 원장

갈보리선교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신데 오늘 촉촉한 단비처럼 적셔주셨습니다. 제 마음도 따뜻하게 녹여주셨어요. 지나시는 길에 또 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할게요.



**천국소망에 더 큰 뜻을 품게 되는 시간
따뜻한 사랑의 집
서성일 시설장**

따뜻한 사랑의 집 노인 요양원에 직접 오셔서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의 찬양과 드라마 등을 통해서 천국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청년들의 헌신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천국소망에 더 큰 뜻을 품게 해주신 선교단 여러분께 감사하며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감동있는 공연**

성화의집 중앙양로원
강상우 사회복지사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울동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공연할 때 특히 남녀와 다양한 연령대가 어우러져 좀 더 멋진 공연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 여운이 가슴속에 은은히 머물렀을 때 여성 한 분이 나와 좋은 성경말씀을 들려주어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과 장비를 보고서도 갈보리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먼 길 우리 성화의집까지 오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안에 하나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성화의 집 중앙양로원
이영신 복지과장

웅장한 사운드와 조명, 무대 의상등...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보입니다. 공연 내용도 찬양과 워십, 드라마 등으로 다양한 내용이었고 전문적인 수준의 공연으로 어르신들께서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번 갈보리선교회 집회를 통해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 주님안에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벅찬 눈물
중앙요양병원
김인근 요양 보호사

오늘 갈보리선교회의 무용과 설교말씀으로 가슴에 벅찬 눈물로 은혜받게 하신 하나님과 갈보리선교회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몸찬양에 이어 천지창조 드라마로 우리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얻게 됨을 보고 들으며 느끼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목포장애인 요양원
이선희 교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따뜻한 사랑의 집
홍혜진 사회복지사
찬양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천국소망을 더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하시는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잊지않고 우리 요양원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과 연극, 간증, 메시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마음이 감동으로 벅차오릅니다. 우리 생활인들도 여름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가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오늘의 공연으로 더욱 얼굴에서 기쁨과 행복이 느껴집니다. 공연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도 치고 메시지를 하는 동안에도, 연극을 하는 중에도 누구하나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양전히 있는 모습이 또 한 번의 은혜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만큼 선교단원 한 명 한 명이 너무도 행복해보였습니다. 내년에도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의 감동 평생 잊지 않을게요.



주님안에 하나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

참편한요양센터
이수진 사회복지사

무더운 여름날 환한 갈보리선교회와의 만남은 참으로 뜻 깊었습니다. 밝은 얼굴과 따뜻한 인사로 갈보리선교회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갈보리선교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규모에 놀라고 아름다운 찬양에 놀라며 다양한 공연에 놀랐습니다. 또한 조명시설부터 음향조절과 의상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한 찬양집회를 위한 갈보리선교회의 준비에 정말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상 하나하나며 무거운 장비들까지 하나씩 준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어르신들이 한 분씩 모이시고 드디어 찬양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으나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저의 걱정은 쫓겨 사라졌습니다. 무용을 함께 따라하시며, 열심히 박수를치시며 갈보리선교회의 찬양에 즐거움과 기쁨의 표정으로 듣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시던 어르신도 고개를 들고 아름다운 모습에 연신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숨죽여 드라마를 보시고 열화와 같은 박

수를 보내셨습니다. 역시 찬양집회가 모두 끝나고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어르신이 너무 감동적이고 좋았다는 반응이었지만 간혹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시는 모습에 두 눈을 감았다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정말이지 드라마는 어르신들에게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회개, 또한 지옥과 천국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는 어르신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듯 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요양원의 수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며 갈보리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이 가슴에 느껴진다

공생재활원
유창진(생활인)

갈보리선교단의 울동이 너무 신나게 느껴진다. 그리고 노래가 너무 열정적이다. 너무 잘해서 기쁨이 내 가슴에 느껴진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나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공생재활원
이경미(생활인)

갈보리선교회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좋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좋았고 재미있었다. 앞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

류춘복(메세지/중국어간사)

한 요양원에서는 그곳 담당 목사님께서 ‘저희 어르신들은 30분 이상은 절대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언하시며 프로그램시간을 줄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곳에 다니며 이미 체험한 바가 있기에 기도하며 일단 시작하였다. 이 곳 목사님께서 유난히 시간을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기에 나는 단 한 분도 중간에 나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분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셨다. 오히려 한 분, 두 분, 발걸음을 옮겨 예배실로 더 들어오셨다. 그 걸음이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돌아가시기 전 복음을 듣고 구원 얻으실 기회가 얼마나 있겠는가? 예배실로 들어오시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천국으로 걷는 걸음 같아 보였다. 이 곳 목사님께서도 집회가 마친 후 크게 감동하시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와주시기를 부탁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다. 내가 이 대열에 서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며 다듬어야 할 것도 결심하였다.

같은 집회...매번 다른 은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

김아영(메세지/영어간사)

출발 전부터 전라도에 태풍소식이 있었지만 이 곳의 날씨는 오히려 선선해서 좋았다. 비록 태풍속보로 빈자리가 많은 예배당이였지만 그 자리에 천군천사가 가득 차 있었다. 매일 같은 집회, 같은 메시지, 같은 드라마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집회 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매번 다르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임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인간세계 어떤 곳에도 없는 그런 감동이 우리의 전도집회에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인간적으로 결핍투성이인 자를 이 고상한 일에 동참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상의 조건들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 드린다. 둘째주를 이제 시작하였는데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이 일에 더 수고하며 땀 흘리길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어췌주시는 이 일에 더욱 합당하게 행하길 원한다. 남은 일정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 더 충성하길 원하며 큰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길 기도한다.



진정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백승범(단원)

38차 국내순회전도는 나에게 5번째 순회전도이지만 그 어느 순회전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긴장하면서 첫째주간 집회에 임하게 되었다. 17사단 사령부 집회를 시작으로 오늘은 참 편한 요양센터와 수도군단 방공대대 집회를 가졌는데, 정말 오랜만에 요양원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기자재 설치를 하면서부터 무척이나 더운 날씨에 시작하기도 전부터 많은 땀을 흘리며 지쳐있었지만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기하게 저 앞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을 진정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몸은 불편하지만 어떻게든 두 손을 모르고 영접 기도를 하려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느껴지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더욱 더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었다. 비록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어르신들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모든 전도자의 마음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정화(메세지/회계/위십간사)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 시작된 순회전도이다. 군대의 전체 훈련 기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정이 한 주 앞당겨짐으로 집회일정에 문제가 생겼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때보다 많은 집회를 하게 되었다. 휴가를 2주 인지못해서 왔다갔다 하는 인원들이 여러명 생겨 대형이 계속 바뀌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대장으로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자하여 적극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종교생활을 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전도자들이 배워야 할 모습임을 보게 되었다. 혹 자신이 이끈 부대원들 중에 큰 일꾼이 될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전도자의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다, 또 한 분은 요양원에 계신 원로 목사님이 신데 찬양마다 드라마 장면마다 “아멘”하시며 화답하시는 우렁참에 매주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식상한 마음으로 보진 않았나 회개의 눈물이 났다. 오랫동안 갈보리 단원으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과연 나의 열정은 얼마나 뜨거워졌는가?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가? 나의 중심은 몇 점인가? 돌아보는 순회전도기간이 되었다. 언제나 가기만 하면,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들 앞에 더욱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합당하게 사역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길 기도하며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자를 전도자로 써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평상시 집회감상문

우리 전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셨는가?

수도군단 10화학대대
상병 김동현

휴일에도 저희 10화학대대원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갈보리찬양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교회를 접해본 이들이 더욱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의 선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갈보리찬양단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이 우리 전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 주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갈보리찬양단 여러분처럼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과 몸짓으로

5사단 신병교육대 본부중대
이병 김선대

선교단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위문공연을 보고나니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또 다른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전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백색옷을 입고 확신에 찬 표정과 몸짓으로 공연에 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음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이 공연을 보고나면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씩은 알아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6사단 포병연대 27포병대대
일병 전성균

군생활을 하면서 날카로운 신경들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뒤로 밀어내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홀로 싸움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어둠으로 가지 않도록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갈보리선교회의 위문공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치 성경을 읽는 듯했고

17사단 102연대 2대대
일병 조한솔

이번까지 저에겐 갈보리선교회의 방문은 2번째입니다. 매번 오실 때마다 한집 댁까지 실어와서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활기차서 보기 좋습니다. 오늘 준비하실 때에 들려오는 원 목소리가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공연을 하셨을까? 그 정성이 새삼 와 닿았습니다. 순서 중에 드라마 순서가 가장 마음에 들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장면 장면이 마치 성경을 읽는 듯했고 음악과 워십에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목소리는 오히려 고운 목소리가 되어 듣기 좋았습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라 믿습니다.

불가마속에 모인 100여명의 병사들

수도포병여단757대대 일병 김예찬

오후에배부터 시작된 정전은 공연을 한 시간 넘게 지연시켰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갈보리선교회의 열정은 절대 사그라지지 않았다. 군중인 나조차도 오늘 공연을 보기 힘들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든 전기를 연결해 보려는 스태프들을 보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꼈다. 그렇게 공연은 진행되었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선풍기 하나 작동시키지 못하는 불가마 속에서 100여명의 병사들은 집중했다. 상황과 조건이 준비되지 않아도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는 열정,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Mission Report

제15차 해외순회전도 준비중

제15차 특별전도팀의 해외순회전도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다음과 같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두나라에서 진행됩니다. 이 거룩하고 중대한 사역을 위해 모든 회원들뿐아니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2년 1월9일~14일(2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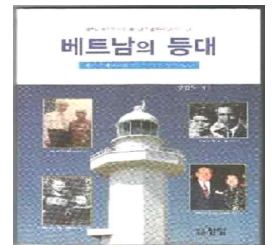
대상국가 : 첫주간-캄보디아

둘째주간-베트남

현지 주관선교사: 장완익선교사(GMS소속)

존경하는 캄보디아 선교의 동역자님께 그 간에도 평안하십니까?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베푸신 물질양면의 후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내용으로 캄보디아 선교현장 사역보고와 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장완익선교사-

1. 그루마을에 처소 개척
2. 품동국제학교 종업식
3. 반주자 양성과 고아 돌봄 사역
4. '베트남의 등대' 출판
5. 제 2회 5개 교회 청장년 연합수련회



1. 섬기는 품동/삼룡/두사교/깜빛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세워진 일군들을 통해 자립하고 발전하는 지교회가 되도록
2. 10월 3일 예정의 품동국제학교 2011-2012학년도 입학과 개강, 1학년 신입생 모집과 추가 교사 초빙, 학교 운영비 마련을 위해
3. 지난 달에 캄장신 목회연구원 입학한 '다윗'의 학비와 교통비지원(월 100\$/월) 그리고 대학 2학년 재학중인 '르물'의 학비 지원(380\$/연)을 위해
4. 오는 9.15~16의 캄장공 선교대회에 캄보디아 장로교회 많은 지교회가 참여하며 이를 통해 내년 가을로 예정한 독노회 설립에 탄력을 받도록
5. 대학 2학년인 '호수'의 공부와 생활 그리고 12학년인 '다래'의 대학 진학을 위해

Ministries of Calvary

◀ 사역소개 ▶

국내 사역

특별전도팀 사역

*본 팀의 전도집회는 A,B,C,D프로그램 중 대상에 따라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집회(공연)이 이루어지며 복된 말씀은 본 회의 메시지위원(목사 외)이 2회로 나누어 영력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각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찬양과 워십 댄싱이 이루어지며 친지창조(A프로그램), 예수님의 일생(B프로그램), 탕자의비유(C프로그램), 손-판토마임(D프로그램) 등의 드라마가 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집회가 됩니다.
*본 집회를 통하여 ①새 교우나 연약자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시되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②기성 신자들은 영적 각성과 변화를 큰 감동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전도팀은 다음과 같이 여러 대상별로 공연을 통한 전도집회를 합니다.

군부대공연전도집회

각종 휴일과 매주일 저녁에 전후방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가장 주된 사역

교회찬양전도부흥집회

각 교회의 초청을 접수하여 순차적으로 택일하여 주일저녁시간에 가지는 특별집회

중.고.대학교공연전도집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특정일에 강당 또는 교정, 야외공연장 등에서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특수기관공연전도집회

교도소, 교아원,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병원 등 각 특수기관의 초청으로 특정일에 방문하여 공연을 통해 전도하는 사역

순회공연전도집회

평상시 원거리 지역을 위한 각종 사역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키 위하여 여름 또는 겨울의 휴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국내 각 지방을 연차적으로 선정하여 2-3 주간 동안 군부대, 교도소, 교아원, 양로원, 재활원, 기업체 등과 각 교회에서 특별전도집회를 하는 사역

유치장전도팀 사역

서울의 강남, 강동경찰서와 대전의 동, 서, 남, 북부경찰서, 청소년분류감호소에 있는 유치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팀으로서 매주 토요일 사역중임.

장애인전도팀 사역

정신박약자, 농아 등 지체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처를 선정하여 봉사 및 선교활동을 하고 있음.

해외 사역

해외순회공연전도사역

2-3주간을 설정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선교사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지원하는 전도사역

선교사지원사역

재정과 기도, 순회전도, 교회건축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역

교육훈련 사역

수요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부교회인 충만교회에 모여 프로그램 연습과 영성훈련을 합니다.

팀모임

매주 목요일 팀별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훈련반

수요정기모임과 함께 가장 주된 훈련프로그램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본부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 성구암송, 큐티나눔, 말씀공부, 통성기도로 모든 사역을 위해 정예일꾼으로 훈련합니다.

특별훈련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행하는 국내외순회전도 전에 약 2회에 걸쳐 한주간씩 훈련을 받는 시간으로 모든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육간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특별전도팀 집회 목록 2010년 9월5일 ~ 2011년 8월12일

9/5	2군수지원사령부 86정비대대	1/30 2/6	20사단1089부대 7포병여단661대대
9/12	30사단312포병대대	2/13	55사단171연대3대대
9/19	26사단 기갑수색대대	2/27	55사단171연대
9/23	청담하늘채(노인복지시설) 송도병원(노인전문요양원)	3/1 3/6	성심케어홈(노인복지시설) 아가페소망교도소
9/26	55사단171연대2대대	3/13	5사단공병대대
10/3	1군단1포병여단652 포병대대	3/20 3/27	한나원(노인복지시설) 5사단35연대3대대12중대
10/10	30사단311대대	4/3	국군의무사령부
10/17	1포병여단898대대	4/10	61사단178연대
10/24	수도군단1175공병단 155공병대대	4/17 4/24	5사단27연대1대대 71사단사령부
10/31	26사단73여단57 전차대대	5/1 5/5	아가페소망교도소 17사단102연대2대대
11/7	사랑나무요양원 (노인복지시설)	5/8	60사단사령부
11/14	평강의집(노인복지시설)	5/15	17사단507연대47대대
11/21	6군단16화학대대	5/22	20사단보병여단91대대
11/28	수도방위사령부 7헌병대 광역수사대	5/29 6/5	수도군단1175공병단 1포병여단898대대
12/5	양평쉼터(노숙자시설)	6/12	수도공병여단757대대
12/12	용인백암너싱홈	6/19	5사단신병교육대
12/19	꿈을키우는집 (아동복지시설)	6/26 7/3	6사단포병연대 수도군단1175공병단
12/26	송도병원(노인복지시설)	7/10	155공병대대
1/2	사랑나무노인요양원	7/17	1포병여단2포병연대355대대
1/3	대천애육원(아동복지시설)	7/31	17사단사령부
1/4	생생꿈마을(노인복지시설)	8/1	51사단168연대4대대
1/5	32사단98연대1대대 사론의집(노인복지시설)	8/2	참편한노인요양센터 수도군단5226부대
1/6	20전투비행단 유일원(정신지체요양원)	8/3	안양중앙노인복지센터 수도군단사령부
1/7	32사단98연대	8/4	55사단172연대3대대
1/9	장수원(노인복지시설)	8/5	효선당(노인복지시설)
1/10	군산서문교회	8/7	수원중앙양로원
1/11	35사단106연대4대대 35사단106연대3대대	8/8	31사단사령부 31사단96연대1대대
1/12	구세군목양원(장애인시설)	8/9	목포장애인요양원
1/13	군산남노회(술산반석교회 외 5교회 연합집회)	8/10	31사단96연대3대대 공생재활원
1/14	행복한노인병원 35사단106연대1대대	8/10	아기베하우스(노인복지시설) 전주덕진교회
1/14	실로암(노인)사랑병원	8/11	35사단05연대1대대
1/23	김제창대교회 20사단포병여단70포병대대	8/12	파뜻한사랑의집(노인복지시설) 35사단06연대2대대